



이화여대 김명숙 교수의 '사색의 춤-알 수 없어요'는 자연과 만물의 상생 변화를 만해 스님의 시 '알 수 없어요'에 담아 불교무용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불교문화계의 기상을 살펴보면 무용 미술은 '맑음'인 반면 음악은 '약간 흐림', 연극과 영화는 '흐림'이다.

**무용** 불교무용계는 올 해 창작 무용이 유난히 풍성한 해였다.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적인 작품을 하는 무용가들이 늘어나 불교무용의 외연을 확대했다는 평가다.

가장 돋보인 작품은 이화여대 김명숙 교수(무용과)가 기획한 '사색의 춤-알 수 없어요'로, 만해 스님의 시 '알 수 없어요'를 모티브로 각색한 이 작품은 가이금 명인 황병기 교수(이화여대)와 조각가 유영교 씨의 설치조각이 어우러져 불교무용의 깊이를 한 단계 상승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조신의 꿈'은 경기도립무용단에 의해 '꿈, 꿈이었는데'로 7월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무대에 올랐다. 또한 비록부처를 기다리며 희망을 가꾸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인천시립무용단의 '미륵의 꽃', 2005 APEC 아시아정상회의 성공개회기원 문화축전행사 참가자인 김옥련 교수(경성대 무용과)의 '도불유회',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도성사(道成寺)' 설화를 한국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하얀 도성사' 등 불교 무용계는 그 어느 해보다도 다양하고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다.

꾸준히 법패와 자복무 공연을 해온 능화 스님은 올해 '찾아가는 무형문화재활동'으로 시선을 모았다. '청소년 포교'의 목적으로 일선 학교의 각종 축제에서 공연을 마린 것. 스님의 공연은 불교 무용계에

### 황병기·김명숙 교수, 유영교 조각가 등 창작예술 풍성 능화 스님 법패 청소년 포교와 공연문화 접목 시도 참신 산사음악회 늘고, 역량 있는 불자 화가들 전시회 줄이어 불교영화 개봉 사실조차 몰라...소재 발굴 관심 절실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만한 시도였다. 이외에도 능화 스님은 서울 국제무용콩쿠르 개막공연, 한국종합예술대학 공연 등 불교계 밖에서 공연에 힘썼다. 법현 스님(불교무용연구소 소장), 동희 스님 등도 꾸준히 영산재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선보였다. 불교 창작발매를 개척한 손재현 교수(동국대 체육교육과 무용전공)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창작발매 '제망매가'를 무대에 올려 꾸준한 창작열을 과시했다.

**음악** 산사음악회의 활성화 이면에는 무대공연을 가꾸어 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유난히 높았다. 손가락에 핏물 정도로 무대공연 횟수가 빈약해 불교음악인들의 창작에 대한 분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음악계에서는 불교계 최초의 오페라단 '바라'가 창단돼 불교오페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6월에 창단된 '바라'는 10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창단 첫 오페라 '아수라'와 '아난다의 고백'을 무대에 올려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음성공양으로 포교를 하려는 움직임도 다각도로 벌어졌다. 진각종 서울청년회 회원들로 구성된 J&B 소울(Jingak news buddhist band of sound-hoild)은 3월 19일 창단 첫 정기연주회를 열고 포교일선에 나섰다. 6월에는 음악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제니스불교음악원이 개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제니스여성합창단도 출범했다.

전통 찬불가뿐만이 아니다. 스님들의 대중가요 음반 출판도 러시를 이뤘다. 심진·윤봉·원일·일봉 스님 등이 가요 음반을 통해 포교에 나섰다. 산사음악회는 해마다 개최하는 곳이 늘고 있는 추세다. 2003년 30여 곳, 2004년 40여 곳에 이어 올해는 50여 곳이 넘는 사찰에서 음악회를 개최했다. 기획과 테마가 있는 음악회들은 인기를 더한 반면 특징없는 음악회들은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천재음악가 윤이상 타계 10주기였던 올해는 윤이상 평화재단 출범을 시작으로 독일의 윤이상 앙상블이 내

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창작찬불동요 제작에 매진해온 좋은 벗 풍경소리 역시 창립 10주년을 맞아 총 21집의 창작앨범을 내는 등 척박한 찬불동요 시장 개척에 매진하고 있다.

한편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전문연주단체 후원회가 생겼다. 재정난으로 해체 위기에 몰렸던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대한 후원회가 5월 28일 출범된 것. 앞으로 전문연주단체에 대한 불교계의 의식변화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변화이다.

**미술** 개인전이 러시를 이룬 반면 그룹전과 테마기획전 등 불교미술의 전반적인 장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기획전시회가 유난히 부족했다. 이만익 이화여대 미술학부 교수의 '꿈과 일상의 중도', 40여 년 간의 작품활동을 회고하는 오경환 화백의 회고전, 탐빈 충만의 '바라보기' 연작으로 형성화한 김영연 화백 초대전, 감성과 화두를 아우른

전시를 했고, 고암 정병래 화백은 자신의 전작작품을 지하철교포교금 조성에 선듯 제공해 개인전을 열었다. 이외에도 반야심경 등을 전각한 김병윤씨의 '깨(斬)' 등이 전각을 알리는데 일조했다.

달이 라마 동북아사무소 한국지구 개소 기념으로 열린 만다라전에 대한 인기는 특출했다. 티베트 전통사원의 스님들에 의해 무려 7일간에 걸친 대형 만다라 제작을 공개하는 드문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미술관의 티베트 탕카특별전 '삶과 죽음'을 넘어서,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갑로展', 삼성미술관 리움의 '신라 백지묵서 화엄경 변상도' 공개, 진천 종박물관 개관, 대원사 티벳박물관의 '인도세밀화 특별전' 등도 불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연극·영화** 무용 음악 미술계가 활발한 활동을 보였지만 연극 영화 쪽은 심한 침체를 드러냈다. 연극은 영화보다 조금 형편이 낫다. 연희단거림과 팔만대장경 제작에 정열을 바친 세 확승의 이야기를 다룬 '아름다운 남자'를 선보인 것이다. 지난해 한련도 불교연극이 없었던 것에 비해



능화 스님이 청소년 포교를 목적으로 공연한 '찾아가는 문화재 예술활동'.



불교계 최초의 오페라단 '바라'는 첫 작품으로 '아수라'와 '아난다의 고백'을 공연했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곳에서 개최한 산사음악회는 '타마'와 '기화'로 승승하듯 갔다. 사진은 미래사의 산사음악회.

김대열 화백의 작품전, 백제관음상을 모자란 도화회씨의 작품전, 선(禪)조각 장르를 개척한 조각가 진철문씨의 조각전, 이호신씨의 '검은 꽃 향기-한지에 담은 단자나' 전 등 다양한 전시회가 열렸다.

개인전 뿐 아니라 고판화와 전각 관련 전시도 불자들의 시선을 잡았다.

서울 일민미술관의 '한국 고판화展', 삼성출판박물관의 '고판화 특별전',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나무·붓·칼·종이의 만남展' 등 고판화전이 연달아 열렸는가 하면 전각가들의 개인전도 이어졌다. 심무용씨는 돌에 갑골문자를 형상화한 '돌'을 세계

면 다량이라 할 정도다.

한국영화 전성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는 특 가수 무진이 자신의 몸을 등신불로 산화해 불교에 귀의한다는 '살타(殺打)'가 제작 개봉됐을 뿐이다. 그나마 대부분의 불자들도 개봉 사실을 모를 정도로 개봉 일주일 만에 내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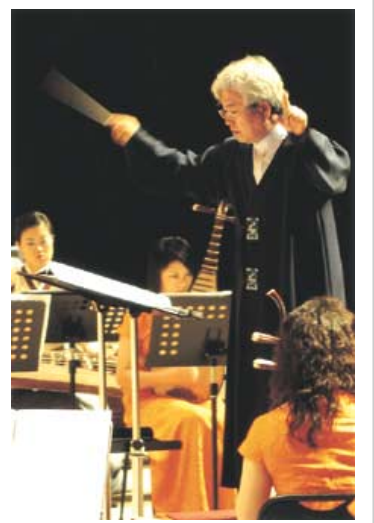
이외에도 주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의 새 기념보유자로 구해 스님이, 제48호 단청장에서 분리된 제118호 불화장에 석경 스님과 임석환씨가 첫 기념보유자로 지정됐다.

김지연 기자 jiyang@buddhapia.com

### '구국음악회-부모은중경' 공연 중앙국악관현악단, 1월 8일(세종문화회관)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음악회가 열린다. 내년 1월 8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구국음악회-부모은중경'은 광택 스님이 작사하고, 박범훈 총장(중앙대)이 작곡한 '부모은중경'을 무대에 선보이는 자리이다.

박 총장이 지휘하고 중앙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하는 이번 공연에는 김성주 교수(중앙대 음악과)와 도신 스님, 박애리 씨 등이 출연한다. 1부에서는 200여 명의 합창단이 교성곡 '보현행원송' 등을 노래한다. 2부에서는 '부모은중경'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 수익금은 넉달 대성석가사의 불사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031)657-0124



소중만 인연될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빔밥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산수조청**

- 산수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산수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산수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성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뜻이 오르지 않는 **산수참죽 조청** 1.2kg  
이월, 냉증, 위장장애, 피로 해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산수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변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죽은 마음을 새겨서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수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 x 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몰랐던 산수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 입금처: 농협 727077-52-056761(현순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수조청원**

바로보인의 책을 **대한 문화재 산사음악회 / 37기**

전각 대천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여집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법담**!

바로보인 전통복 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5권  
바로보인 중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복재로 세상을 복사하여  
앞뜰에 국화꽃 곱고 복산에 첫눈이 내린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2권 출간!!>

선(禪)을 수행하는 분들이 기다리던 선 수행 문답집,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후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날마다 실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수제화로 제작 **滿 行 靴**

소재특징: 방수 극세사 원단, 눈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방한용 털신

털 깔창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 가격: 6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기능성 지압 깔창

발바닥 부들부들

● 규격: 215-290mm (키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20,000원

문의 및 주문전화: 02)927-5715, 011-9000-5715 (보시용으로 10쪽이상 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지민)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기적의 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아십니까.

스님? 세상에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서는 보살입니다. 대전에 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 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찬물로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까지도 필가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찔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새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부러, 잇몸농종,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 : (02)2271-1441 농협:360-12-04644 최능우